

“장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단점부터 없애라”

동국대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 서 시골의사 박경철 강의

11월 22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린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에는 박경철 시골의사가 '청춘의 삶과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강연장에는 박 씨의 강의를 듣기 위해 5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행사장이 북새통을 이뤘다. 박경철 씨는 강연에서 청춘이라는 가장 뜨거운 시기를 어떻게 학생들이 따져 고쳐 보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84@naver.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청춘, 뜨거운 이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청춘을 뜨겁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로 전학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공무원이었고, 저는 아주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초에서 대구로 전학을 가니 처음에는 위축되고 긴장을 많이 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당시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불러다 "전에 활발했던 거 같은데 왜 지금 학교에서는 기가 죽어있느냐"며,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지금까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상상하고 싶은 것, 꿈꾸고 싶은 것과 만나게 해줍니다. 특별한 재주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지금처럼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독서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들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을 공부하고 외웁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들은 하드웨어에 기록된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에 쌓인 지식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지식을 삶에 반영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리 가르치거나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하면 되지만, 지혜는 내부와 연결돼 내 삶 속에서 치열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을 쌓는 것에만 집중해 왔지, 지혜를 쌓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와 소통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어디서 무얼 하고 놀까'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친구는 내 인생에서 위로자 일수는 있지만 동반자 일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는 친구가 눈빛만 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아닌, 긴장이 되거나 비극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생각의 찌꺼기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나의 지혜로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길, 또는 정해진 동배에 가면 우리는 아무런 영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낯선 곳에서는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모아진 생각의 찌꺼기

들이 축적되면 지혜가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과의 조우, 낯선 것에 호의를 가지면 그것이 곧 내 것이 됩니다. 내가 편안한 것, 익숙한 것에 호의를 가지면 결코 내 것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혜를 만들고자 전 세계의 낯선 곳을 일부러 여행을 다니거나, 나와 적개심을 가진 이들과 매일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 지혜를 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의 감정에서 텍스트를 접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너머에 있는 텍스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한편의 책을 읽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책이 주는 메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과 조우해야
지식이 아닌, 자체 쌓기에 집중해야
텍스트 너머의 세계관을 발견해야
나는 반짝이는 구슬임을 명심해야

또 텍스트는 나의 세계관과 나의 경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달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기억하고 있는 소설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 작가인 이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인생은 감옥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기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감옥이라는 말은 내가 닫힌 세계에 갇혀 살면 감옥 속에 사는 것과 같다는 엄청난 통찰력을 내포합니다. 이처럼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서를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공자는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생각만 있고 배우지 않아도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는 가장 명료한 교육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춘의 시기에 도전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를 보이고, 낯선 것과 조우해야 합니다.

세상과 공감하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공감이라는 화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의 공감이라는 관념적이고 식상한 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40대 초반의 위암환자가 왔습니다. 당시 그 분은 암이 장기에 전부 전이돼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자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실에서 엄마를 돌보던 아들과 컵라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저도 어린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당시 제 경험을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무섭거나 앞날이 걱정되고 슬프기 보다는 임종을 앞두고 말도 못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무척 친하게 지냈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 옆을 지키며 저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시라고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그 때의 경험을 비추어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돌만 남겨 되는데, 네 입장에 보면 이 일은 무척 견디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네 입장 말고 엄마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주저앉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고 생각해 보라"로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입니다. 저의 병원에 신부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신부님에게 흔히 말하는 후광이 비쳤습니다. 그 학생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유의 빛깔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빛깔은 마치 반죽과 같아서 좋은 태도·습관·생각·인행들이 한데 엉켜 그 사람의 빛깔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빛깔이 좋고, 나쁜 습관을 많이 한 사람은 나쁜 빛깔이 납니다. 이것이 타인에게는

그 사람의 첫인상으로 기억됩니다.

첫인상은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고 처음 보는 빛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슬과 같습니다.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 같은 구슬인데, 나쁜 습관들과 태도가 먼저 쳐들어와서 그 빛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라고 하면 단점은 잘 적지만 장점은 잘 적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장점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새로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점을 줄이면 온전히 장점만 남게 됩니다. 장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더러워진 구슬을 임시방편으로 가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점을 만들기보다 단점을 버리는 일이 훨씬 인생에서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단점을 개선하지 않고 장점만 증진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단점을 줄이면 내가 가진 고운 빛깔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신부님은 단점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신부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컵라면을 먹으면서 제가 해줬던 이야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철없는 의사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밥을 먹으면서 잠깐 해줬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침이 됐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심코 했던 나쁜 말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고통과 지옥을 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그의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매일 밤을 새며 근무하던 때가 제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달리 생각합니다. 48세의 아저씨가 소녀시대보다 더 환대받으며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도 쓰고 100회가 넘는 강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한 시기가 언제냐고 누가 또 묻는다면, '지금'이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미래에는 두근거리는 떨림과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반짝이는 구슬이고, 줄기세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움에 아닌 반가움으로 두 팔 벌려 안아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 친구들의 마음도 함께 이해하게 되신다면,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잖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아 함께 배출되기에 몸속 (체온) 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배까지 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미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착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열체와 오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합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명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상책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 옷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로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